



백화점  
체험형 세일  
승부수  
니



Life

K-뷰티  
헤어케어 시장까지  
복미서 존재감↑  
L2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2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VIP 티타임에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연 하나은행 Club1도곡 PB센터지점 Gold PB 팀장, 정만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고승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전 금융위원장),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택동레이크투자자문 사장. /최규춘 기자 ch9720@

##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 코스피 6000 온다”

강연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D램 가격 급증·AI 기술변화 등 성장요인

“올해는 반도체 유프사이클이 될 것 같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 24일 '2026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을 주제로 반도체 유프사이클에 기반한 한국 증시 상승을 전망했다. 유가 급등과 사모대출 펀드 리스크, 인공지능(AI) 거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전쟁 변수를 제외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먼저 이 센터장은 반도체 호황의 근거로 가격 변화 추이를 짚었다. 특히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D램 가격이 주목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D램 가격지수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년 사이 37배 이상 급증했다.

그는 “현재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은 영업이익률이 97%에 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반도



체 업황은 한국 경제와 증시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만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성장을 이끌 요인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 변화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기존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심의 트랜스포머 기반 AI 모델이 한계를 보이면서, 메모리 구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포스트트랜스포머’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을 바탕으로 증시 상승 여력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이 올해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스피 연평균 지수는 5900~6000포인트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반도체 외 투자 대안으로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산업주도 언급했다. 이 센터장은 “ETF나 또는 증권사들이 추천해 주는 쪽에서 흔히 말하면서 PBR이 낮은 기업들 법적으로 포지션을 잡는 것도 한 가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부동산 투자, 가격상승보다 현금흐름에 초점”

강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노후설계, 부동산-자산 50대50 균형 맞춰야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가격보다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인지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2026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부동산 시장은 공간·세대·노후설계의 변화가 맞물리며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먼저 공간 트렌드의 변화다. 그는 기후재난을 중요한 변수로 꼽으며 이상기후가 도심 쏠림 현상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꿨다면 이제 안전과 관리 측면에서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세대 변화도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했다. 박 위원은 30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를 ‘es sayer(선도자)’로 규정하며 시장을 이끄는 주체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맞벌이 비중 증가가 있



다”면서 “30대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주택 구매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당, 용인 수지, 한강변 등 주요 지역 집값 상승 역시 투기 수요도 있지만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는

타임푸어 수요와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했다. 고령자가 세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자산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도 짚었다. 박 위원은 이번 양도세 증가로 중심지역이 먼저 하락한 ‘코어 디스카운트’ 현상을 언급하며 “고령자들이 현금 흐름 제약 때문에 주택 수를 줄이거나 ‘다운사이징’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강연의 핵심은 노후설계 전략이었다. 그는 “노후설계의 핵심은 캐시플로우(현금흐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며 “가격 상승보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위원은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 자산과 50대 50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한 ‘웬드리치 캐시푸어’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성채리 기자 cr56@

## “금융대전환 시대… 유행 아닌 원칙투자 중요”

강연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단기 테마주 지양… 장기·분산투자 ‘주효전략’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금융정책을 알면 불안이 줄고 선택이 선명해진다. 금융대전환의 시대에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 그 자체가 아닌 소비자의 판단력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2026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정부 정책의 핵심 방향과 내 자산관리의 기준'을 주제로 강연했다. ‘금융대전환’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성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시대에 필요한 금융 원칙을 제시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생산적금융은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첨단산업으로 이동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라면서 “단기 테마주를 쫓기보다는 수익모델이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와 분산투자가 주요한 투자 전략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포용적금융은 예측하지 못한 실업이나 금융사기,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재기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면서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 주변에도

포용적금융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는 만큼 여러 제도에 대해 파악하고,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운영 이사장은 금융대전환 시대를 위한 ‘금융생활 체크리스트’를 제안했다. ▲은퇴 전·후의 현금흐름을 파악해 고정비용을 조정할 것 ▲부채 변동금리 비율을 파악해 부담의 범위를 파악할 것 ▲부동산이나 주식 등 특정 자산에 위험이 편중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한 의료비 보장이 충분한지 파악할 것 등의 내용이다.

정 이사장은 “유행이 아닌 원칙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지 말고,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생활비를 확보해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수익보다 생존… 꾸준한 수익구조 만들어야”

강연

윤종연 하나은행 Gold PB 팀장

현금흐름 중요… 분산투자, 절세로 자산 지켜야

윤종연 하나은행 Club1도곡 PB센터지점 Gold PB 팀장은 최근 시장을 “수익보다 생존이 중요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환율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과거와 같은 자산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한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팀장은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강연에서 고액자산가들의 투자에서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채권과 예금 등 안정형 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현금성 자산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가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유동성 자체가 하나의 ‘방어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현금흐름’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



조했다. 단순한 자산 규모보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장기적인 안정성을 좌우한다는 판단에서다. 윤 팀장은 “부자들은 자산가액 상승에만 기대지 않는다”며 “배당, 이자, 임대수익 등 꾸준히 현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투자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시장이 과열되거나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를 지양하고, 반대로 과도한 조정이 나타날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타이밍을 맞추기보다는 구간을 나눠 대응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절세와 분산 역시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자산군뿐 아니라 통화, 지역, 투자 상품을 분산해 특정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낮추고, 세후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 고액자산가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변동성 국면에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에 가깝다는 평가다. /나유리 기자 yu115@